

메시지 2

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

성경: 계 1:17-18, 10:7, 12:11, 15:1, 8, 행 2:24, 빌 3:10-11

I. “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, 살아 있는 이이다.” — 계 1:17하-18상.

- A.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함축한다.
- B. 주 예수님은 처음이실 뿐 아니라 시작이시며,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끝이시다 — 계 21:6, 22:13.
 - 1. ‘처음’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, ‘마지막’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2. ‘시작’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, ‘끝’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.
 - 3.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,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.
- C.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다. 이것은 교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— 비교 딤후 4:5.
 - 1. 주 예수님은 결코 그분의 일을 끝마치지 않으신 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— 계 10:7, 15:1, 8.
 - 2.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.
 - 3. 주 예수님은 자신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.
- D.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이시다.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한다 — 계 2:1.

II. “내가 죽은 적이 있다. 그런데 보아라,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” — 계 1:18상.

- A.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— 계 2:8.
- B.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,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(행 2:24).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이다(요 11:25).
- C. 부활은 주님의 날들의 연장이다.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다.
 - 1.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살아 계신 분, 곧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시다.
 - 2.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 계신 분이셔야 한다.
- D.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데 있다.
 - 1.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 살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원하신다.
 - 2. 우리는 살아 있을수록 더욱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 간다 — 계 12:11.

III. “영 안에서 그분(그리스도)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.” — 뵤전 3:19.

- A. 영들은 음부에 갇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, 곧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, 노아 시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렁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(천사들은 영들임—히 1:14)을 가리킨다 — 벧후 2:4-5, 유 6.
- B.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, 그분의 신성인 살아 있는 영 안에서 무저갱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, 곧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.
- C. ‘감옥’(벧전 3:19)은 타르타로스(Tartarus), 곧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깊고 어두운 구렁이를 의미한다.

IV. “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.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.” — 계 9:1-2, 11:7, 17:8, 20:1, 3.

- A.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별은 사탄을 가리키는데,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.
 - 1. 천사들은 별들에 비유된다 — 욥 38:7, 계 12:4.
 - 2. 천사장인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다 — 사 14:12.
- B. “‘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?’...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.” — 롬 10:7.
 - 1. ‘무저갱’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‘아비소스(abyssos)’이다.
 - 2.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— 눅 8:27, 33, 35, 38.
 - 3.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도 나오는데, 거기서는 ‘메뚜기들’이 나올 장소를 가리키며,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이다.
 - 4.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를 의미한다.
 - 5.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 이 단어는 사탄이 던져져서 천년왕국 동안 갇혀 있게 될 장소를 설명한다.
 - 6. 로마서 10장 7절에서 무저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는데,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음부이다.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.
 - 7.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, ‘무저갱’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,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킨다. 그곳은 땅 아래 낮은 곳이며(엡 4:9),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다.

V.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“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.”라고 말씀하신다.

- A.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,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,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인 음부로 데려가고 있다.

- B. 그러나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는다 — 빌 3:10-11.
- C.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.
1.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었다 — 행 2:24.
 2.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자 부활이시며(요 1:1, 11:25),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다(히 7:16).
 3.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.
 4.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,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.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.
 5.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죽음은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다.
- D.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므로, 죽음과 음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.
- E. 교회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다.
- F.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
1. 우리는 도무지 죽음을 다룰 역량이 없다.
 2.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정복될 것이다.
- G.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,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— 마 16:18, 계 20:14.
1.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반을 얻지 못하시면, 즉시 죽음이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죽은 이들을 붙잡을 능력을 얻게 된다.
 2.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, 즉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— 요 5:27, 17:2, 계 12:10.
 3.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.
- H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— 계 1:18, 히 13:15, 벧전 1:7, 계 19:5-6.